

본문: 요한복음 4 장 16-26 절

제목: 영과 진리를 통해 한 얼굴로 예배하라

1. 들어가기 - 4 장까지 내용 요약

우리는 몇 달 동안 요한복음에 대한 강해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 장부터 4 장까지 오면서 저자가 점점 zoom in 하면서 좁혀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신 예수가 소개됩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장막을 치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장막은 성막 또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시기 위해 오심을 강조한 표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2 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이 멈춰버린 유대교 성전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잔치가 멈춰버릴 위기에 빠뜨린 성전 종교를 예수님은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첫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 논지를 뒷받침 하기 위해 성전 청결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자신의 책 맨 앞에 위치시킨 것이구요. 요한은 1 장의 첫 부분에서 참 빛이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상속자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은 가문이나 출신 배경 등의 어떤 조건과 상관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실례로 요한복음 3 장과 4 장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구요.

3 장에서는 유대교 성전 시스템의 최고봉에 있는 니고데모, 그리고 4 장에서는 성전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둘을 통해 요한복음 1 장 12-13 절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런데 1 장에서 4 장을 관통하는 주제어 중에 하나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도 성전이었죠. 성전은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성전과 예배에 대한 주제에 대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기울여 봅니다.

2. 예배라는 주제로 넘어가기 위한 남편 이야기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대화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 남편,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주 말씀을 통해 생수라는 주제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갈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색에 빠지고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한 여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들마다 그녀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그를 아내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 거절당하고 아내 취급 받지 못하는 매우 불행한 여인이지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문란한 여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원만한 가정 생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녀에게 일상 자체가 고통입니다. 15 절의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 속에 그녀의 일상의 버거움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 말은 일상을 포기한 듯한 말이기 때문이죠. 일상 생활의 노동을 불필요하게 하는 물이 있다면 그걸 나에게 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은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이 아니라 사약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만큼 일상이 힘든 겁니다. 원래 일상은 고달픈 것이지요. 여인의 생수 좀 달라는 것은 일상의 노동과 수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하소연입니다. 원수 같은 남편과 살아보십시오. 부역으로 가는 길이 천리 길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사는 여인의 하소연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여인의 상태를 간파하고 예수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짓궂은 요청을 하십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의 과거 히스토리를 들먹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굳이 언급하시면서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남편의 주제로 넘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언자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은 예언자이시군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에서 예언자라는 말이 나오죠. 신명기 18 장 15 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이 말씀을 떠올리며 지금 예수를 모세급이나 그 보다 더한 예언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의 주제로 넘어가신 두 번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현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 과부인데 사마리아인들의 현실이 과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의 현실을 대표하는 인물이구요. 셈족의 문화에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과부로 표현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묘사하죠. 남편이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과부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지금 상태가 하나님 없는 과부상태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없는 공동체가 바로 남편이 없는 과부상태의 사마리아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인 전체가 참된 예배와 신앙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22 절의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구요.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남편의 주제에서 예배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3. 예배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예배에 관한 화두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지난 주에 사마리아의 간단한 역사를 말씀하면서 요한 힐카누스(John Hyrcanus)의 사마리아 학살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B.C 150 년 경에 있던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인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성전파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쪽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방해해 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정통성이 있는 성전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신명기 27 장의 언약체결이 바로 세겔에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세겔에는 두 개의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예발산입니다. 모세는 이 두 산에 6 개씩 민족을 나눠 세우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심산의 축복과 함께 그들의 가나안에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이 파괴되고 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여인은 이 사건과 갈등의 역사를 마음에 두고 예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과 성전에 관한 오해는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오경은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관점에 맞게 지명을 바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2 장의 모리아 (Moriah)땅에서의 이삭의 희생제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에 모리아가 모레(Moreh)로 표기됩니다.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모리아나 모레나 자음이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모리아가 모레로 바뀔 수 있었던 거죠. 모레는 세겜의 다른 지명입니다. 모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 맞냐,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 맞냐는 논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두 산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문제를 장소보다 예배자의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배의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후 예수님은 예배에 있어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의 부름에서 반복하여 듣는 말씀입니다. 24 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라는 헬라말은 “En Pneumati kai Aletheia (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ᾳ)”입니다. 헬라어 En 은 영어의 in 입니다. En 은 뒤에 명사의 Dative (탈격)형태를 목적으로 취하는 경우 “~로”라는 도구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프뉴마와 알레테이아 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배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4.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Pneuma(영)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이죠. 참고로 예배하다는 말은 옆드려 키스하다는 원뜻입니다. 예배란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성령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10 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과 욕망을 채우시고 만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기 위해 민감해 지기 위한 상태가 영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민감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 감동 감화 되어 성령의 영향을 받고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민감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나를 온전히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져 성령님이 지시하는 것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靈, Spirit)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零, Zero)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靈性)은 영성(零性)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비워

Zero(영)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Zero)이 될 때 비로소 성령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로 순종할 수 있는 민감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 장의 바울의 선교팀처럼 아시아로 선교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성령이 마케도냐로 가라시면 즉시 순종하여 목적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 나의 주도권을 온전히 성령님께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Aletheia(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변함 없는 것을 말하지요. 알레테이아는 신실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신실함 또는 진리라는 말은 변함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명제적인 지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인 견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말은 '1+1=2'라는 명제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리란 예배자가 갖고 있는 인격의 통전성, 견고성,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자기 통일성을 가지고, 인격적인 일관성을 가진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C. S. Lewis 의 책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Until We Have Faces> 라는 책을 보면 이 개념이 나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참된 identity 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진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통일된 나의 모습, 일관된 나의 인격, 인격적인 Integrity 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같고, 일상과 주일 예배의 모습이 같은 일관되고 통일된 나의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혹시나 허물 있고 죄악 된 모습이더라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기 위해 나의 일상에서의 얼굴과 예배당의 얼굴을 하나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대상이 바로 자신이심을 여인에게 말씀하심으로 본문의 예배의 주제가 마무리 됩니다.

5. 일상과 예배당에서 하나의 얼굴로 드러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는 예배의 장소로서 이 산이 맞느냐 저 산이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가 지금 있는 그 장소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Here and Now (라- Hic et Nunc)!!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일상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움직이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우리는 영과 진리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신실한 인격과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새겨진 주제처럼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을 버거워 합니다. 제발 이 일상에서 벗어나 일 안하고 배고픔을 채울 길이 어디 없을까 목말라 합니다. 한 방에 내 목마름과 허기를 채울 도구들을 찾아 헤매죠. 재물이 목마름을 날려줄 한 방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한 방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선물은 성령님 뿐인대도 말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편한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일상 구석 구석 안에 성령님이 스며들지 못하면 우리 일상은 버거운 짐이 되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애정을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 행하는 가사는 무거운 중노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구석 구석에 성령님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이 생기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흑백으로 단조롭고 의미 없던 나의 일상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름다운 하늘빛으로 채색되길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늘 빛을 끌어들이기 때, 우리의 일상은 경건의 통로가 되고 우리들의 노동은 숭고하고 장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미로 바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감상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Bartolome Esteban Murillo, 1617-1682) 라는 스페인 화가의 1646 년 작품인 <천사들의 부엌, The Angels' Kitchen>이라는 작품입니다. 세비야에서 태어난 무리요는 어린 시절부터 전해들은 세비야 인근의 엘 그란데 (San Francisco el Grande) 수도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30 년을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해 온 하급 수사 페레스(Perez)라는 사람의 일화에 감동을 받아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인 페레스는 신심이 깊어서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라틴어나 그리스어 그리고 스콜라신학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로 부엌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엌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에 몰두하다가 그만 식사 준비하는 것을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허겁지겁 부엌으로 달려갔는데, 천사들이 이미 식사를 다 준비해 놓았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옛 이야기 중에 우렁 각시 이야기와 비슷하죠. 이 그림을 보면 가운데 두 천사가 물병과 빵을 들고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좌우의 구도로 나뉩니다.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 페레스가 광채가운데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살지만 하늘을 맛보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의 왼쪽 옆에는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명의 귀족과 한 명의 상급 수사가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부엌에서 벌어진 일에 매우 놀라워하는 표정입니다. 화면의 오른쪽은 부엌을 묘사합니다. 남녀노소 각각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부엌일을 하는 중입니다. 불을 지피고, 그릇을 배치시키고, 채소를 다듬는 어린이, 양념을 뺀 이 등 다양한 사람이 분주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어깨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천사들입니다. 무리요는 이 그림을 통해 신앙생활에 열중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지만 밥을 짓는 일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앙의 본질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연결된 모든 일상의 행위들을 통해 거룩함을 드러난다는 것을 무리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늘 빛이 물들 때, 여러분의 노동은 숭고하고 장엄한 찬미로 바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일상과 예배당 안에서 일관된 얼굴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 주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민감한 순종의 준비 상태와 일관된 얼굴(인격 또는 아이덴티티)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 때라는 말씀은 나의 일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직장과 노동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 무리요의 그림 참조.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늘 빛을 끌어들이는 때, 일상은 경건의 통로가 되고 노동은 숭고한 찬미가 됩니다.